

수사법 총정리

수사법(修辭法) 정리

1. 비유법

(1)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①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②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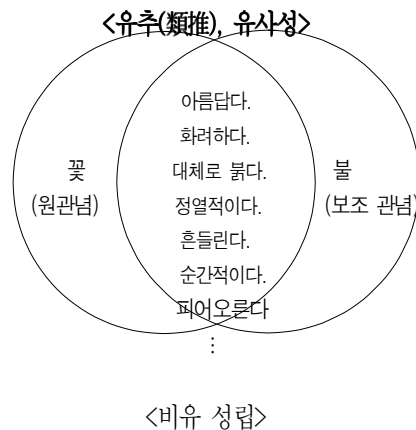
·사이비 진술(주관적 변용)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민요)'에서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예 심금(心琴)을 울린다.(심금 → 마음)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2) 기능

①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②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③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수사법 총정리

(3) 종류 : 두 시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①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신경림, 농무>

- ▶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걱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럽이 공통점 : 해해댄다.

② 은유법 : 공통점을 숨겨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서정주, 광화문>

- ▶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③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감정 이입 : 자기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 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법.

④ 시간의 발은 /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강규형, 쓰러지는 잔>

④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 송장이 / 수백만(數百萬) / 붉은 피가 / 삼천리. <송옥, 해인연가(海印戀歌)>

→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⑤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대유는 환유와 제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이유경, 아버지의 흙2>

→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⑥ 풍유법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

예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 허울 좋은 숨시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 밑줄 친 부분은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수사법 총정리

2. 강조법

(1)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2) 종류

①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예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고은, 성묘>

→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②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예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조지훈, 풀잎단장>

③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예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서정주, 건우의 노래>

④ 점층법 : 점점 힘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예 사랑이 거짓말이. 넌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봤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고시조>

수사법 총정리

⑤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예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⑥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예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박성룡, 양귀비꽃>

⑦ 역양법 : 처음엔 치켜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예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패허여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패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역양법이다.

⑧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봐.

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이황, 도산십이곡>

수사법 총정리

3. 변화법

(1)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2) 종류

①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율격을 이루는 요소가 되며 강한 인상을 준다.

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②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감정의 변화를 준다.

예)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 나의 시는. <김현승, 절대 고독>

③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으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련만......

<이상화, 나의 침실로>

→ (생략된 부분은 나를 믿고 부활의 동굴임을 아는데)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수사법 총정리

* 그 외의 독특한 표현 기법

1. 반어(反語, irony) :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 드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말이 『있었노라』 <김소월, 먼 후일>

→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모순 형용역설

(1)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並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혼드는

영원한 나스텔지아의 손수건 <유치환, 깃발>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정지용, 유리창 I>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실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고은, 타는 목마름으로>

· 두 불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승무>

(2)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 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표현이다.

예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 / 가난한 시를 쓴다. <임강빈, 부재(不在)>

·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경림, 농무(農舞)>

→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김수영, 현대식 교량>

·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엮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용운, 선사의 설법>

수사법 총정리

3. 풍자(諷刺, satire) :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빠지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찢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뻘뻘기 나아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뼈억 뼈어 뻘뻘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뻘뻘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서정주, 뻘뻘기>

→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뻘뻘기 나아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 백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습니다.

살갓을 회개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프>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슬픈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김기림, 시민 행렬>

→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분을 풍자하고 있다.